



KIA 최형우, 12번째 2000안타 '초읽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38)가 KBO리그 역대 12번째 2000안타 달성을 앞두고 있다. 최형우는 12일 현재까지 1993안타를 기록해 2000번째 안타에 7개만 남겨두고 있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데

안타 이상을 기록한 꾸준함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2016년에는 한 시즌 개인 최고인 195안타를 기록하며 KBO리그 안타 부문 1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며 185안타 기록과 함께 0.354의 타율로 타율 부

2002년 삼성서 데뷔...10월 18일 첫 안타
13년 만인 2015년 6월 3일 1000안타 기록
2008년부터 13시즌 연속 100안타 이상 꾸준

위한 최형우는 데뷔 후 2번째 경기였던 2002년 10월18일 사직 롯데전에서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이후 13년 만인 2015년 6월 3일 포항 롯데전에서 통산 1000안타를 기록한 후 꾸준히 안타를 추가해 통산 2000안타를 바라보고 있다. 최형우의 2000안타 대기록은 2008년부터 13시즌 연속 100

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올해 7개의 안타를 친 최형우는 이번 시즌 51개 이상의 안타를 기록할 경우, 이병규(전 LG)의 2043개를 제치고 KBO 통산 최다안타 순위 10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 KBO는 최형우가 2000안타를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뉴스



완도 체육계 연이은 낭보 '저력 입증'

2023 전남체전 유치·전국 역도선수권 석권·이소미 프로 우승

완도군이 '2023년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완도군 역도실업팀이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데 이어 완도 출신 골프선수 이소미 프로가 'KPGA 개막전'에 우승을 하는 등 완도군 체육계에 겹경사를 맞았다. 먼저 지난 달 31일 열린 전라남도 체육회 제33회 이사회에서 2023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2024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지로 완도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간 대회 개최로 참가 선수 및 응원단 등이 약 3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강원 양구 융하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전국 실업역도 선수권 대회' 및 '제69회 전국춘

계남자역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남자 일반부 최우수 선수상에 이양재 선수가, 최우수 감독상에 서호철 감독이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1 KPGA 투어 시즌 개막전 첫 대회인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에서는 완도의 딸 이소미 프로가 나흘간 강한 바람에도 오버파 없이 안정적인 경기를 진행해 최종 라운드 72타를 쳐서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우승해 통산 2승을 거뒀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 체육계에서 좋은 소식이 이어져서 기쁘다."면서 "앞으로 체육인 지원과 더불어 2023 전남체전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완도군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제치고 구단가치 첫 1위

美 경제전문지 포브스 분석...5조3500억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리가의 FC바르셀로나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따돌리고 처음으로 축구단 가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13일(한국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한 '세계 축구단 가치 톱 20'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47억 6000만 달러(약 5조3500억원)로 레알

마드리드(47억5000만 달러)를 1000만 달러 차이로 제치며 1위에 올랐다. 바르셀로나가 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6차례 발표가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5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11회 1위를 차지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치

높은 축구단 상위 20곳의 평균 가치는 2년 전과 비교해 30% 증가한 2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시즌 20곳의 평균 매출은 4억4100만 달러로 2017~2018시즌 대비 9.6% 감소했고, 평균 영업이익 역시 2300만 달러로 70%나 감소했다. 포브스는 "유럽 축구 대부분이 여전

히 관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처리되고 있어 매출이 감소하는 고통은 여전하다"고 했다.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42억1500만 달러로 3위, 맨유가 42억 달러로 4위, 리버풀(잉글랜드)이 41억 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맨체스터 시티, 첼시, 아스날(이상 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이 6~9위로 뒤를 이었고,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



김광현, 최종 점검 '만족'...복귀 임박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복귀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문제 없이 마쳤다. CBS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시물레이션 게임에 나선 김광현의 소식을 전했다. 김광현은 12일 대체 캠프지인 미국 일리노이주 세인트클레어카운티 소재 GCS 크레디트 유니온 볼파크에서 열린 시물레이션게임에 등판해 86구의 공을 던졌다. 당초 90구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획보다 4개 적은 86개의 투구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김광현은 많은 공을 던진 후 만족했다. 이는 시즌 첫 등판전 마지막 관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던 김광현은 스프링 트레이닝 중 허리에 불편함을 느껴 재활에 들어갔다. 앞서 두 차례 시물레이션 게임에 등판해 41구, 68구로 투구 수를 늘려갔다. 그리고 이번 등판에서 90개에 근접한 공을 던지며 마운드 복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아직 김광현의 복귀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전남기술과학고 복싱팀 (왼쪽부터 서상화, 박성현, 박수인, 임형욱, 박 구 감독)

전남복싱, 금빛편치 날리며 올시즌 화려하게 시작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서 금 3개·은 2개·동 2개 등 총 7개 메달 획득

전남복싱이 금빛 편치를 날리며 올 시즌을 화려하게 시작했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충남청양에서 열리는 2021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한 전남기술과학고와 전남체중복싱팀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복싱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화순 전남기술과학고에서는 남고부 ·81kg급에 출전한 임형욱(3년)이 이한울

(부산체고)을, -60kg급 박수인(3년)이 박수찬(대전고)을 각각 결승에서 판정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성현(2년)은 ·91kg급 결승에서 신유승(계산공고)에 판정패하며 아쉬운 은메달을, 서상화(3년)도 ·69kg급 준결승에서 이주상(금오고)에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중은 남중부 ·46kg급에 출전한 권민준(2년)이 한은혁(경기광주중)에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

했다. 이어 ·38kg급 결승에 오른 김태수(2년)가 이승훈(대전가오중)에 패하며 은메달을, -42kg급 김현영(3년)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재무 회장은 "미래 전남 복싱을 이끌어갈 꿈나무 선수들의 우수성적 거양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해 올 시즌도 부상 없이 승승장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KPGA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내일부터 18일까지 '빅뱅'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대회 역사상 첫 2승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2021시즌 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7억원·우승상금 1억4000만원)'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 컨트리클럽 오크, 메이플코스(파72)에서 펼쳐진다. 2014년부터 2019년, 올해 개막전으로 열리는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의 주최사인 DB손해보험은 2005년 '동부화재 프로미배 제48회 KPGA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16회째 KPGA 코리아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DB손해보험은 올해 대회 총상금을 2억원 증액하며 선수들을 맞이하는 등 한국프로골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DB손해보험 단독 주최의 대회로 시작한 2011년부터 치러진 지난 9년의 대회에서 본 대회는 모두 각기 다른 우승자를 배출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우승자 9명 중 7명이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경남(38), 이창우(28), 이동민(36), 하인호(34), 최진호(37), 맹동섭(34), 캐나다 교포 이태훈(31)이 두 번째 우승을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9년 챔피언 이태훈은 대회 사상 최초로 2회 우승 및 2연패를 노린다. 이태훈은 "지난해 대회가 열리지 않아 아쉬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전지훈련도 계획한대로 잘 마쳤다. 개막전에 맞춰 경기 감각과 컨디션 모두 올라왔다. 타이틀 방어에 꼭 성공하겠다"는 출사표를 써냈다. "젊은 피" 김주형(19), 김한별(25), 이재경(22)과 '베테랑' 김태훈(36), 이태희(37), 문경준(39)의 맞대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KPGA 코리아투어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킨 김한별, 이재경, 김주형은 개막전 우승을 노린다. 2020시즌 2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포인트, 제네시스 상금순위에서 2위

에 올랐던 김한별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100m 거리 이내 웨지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했고 체력 강화에도 힘 쏟았다"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 분들께 우승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시스 포인트, 제네시스 상금순위 3위에 자리했던 이재경은 "목표는 '제네시스 대상'이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샷 컨트롤과 퍼트 훈련에 매진했다"며 "지난해 우승 찬스를 맞이했을 때 중요한 퍼트를 종종 놓친 적이 있어 퍼트를 중점적으로 다듬었다. 자만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태훈은 2020시즌 11개 대회에 출전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 포함 톱10에 5회나 진입했다. 생애 첫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을 거머쥐었다. 김태훈은 "올해 목표는 투어 데뷔 이후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다승이다. 시즌 2승을 넘어 3승까지 도전해 보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제네시스 대상, 제네시스 상금왕 2연패의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태희는 4년 연속 KPGA 코리아투어 우승에 도전한다. 2015년 넥스 헤리티지에서 첫 승을 올린 이태희는 2018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매년 우승을 추가했다. 2019년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문경준, 2018년 제네시스 상금왕 박성현(38), 2016년과 2017년 제네시스 대상을 거머쥔 최진호, KPGA 코리아투어 통산 10승의 강경남 등도 승수를 추가하기 위해 정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최사인 DB손해보험은 올해도 '사랑의 버디' 행사를 실시한다. 사랑의 버디는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때 마다 일정 기금을 적립해 소의 계층과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